

# 정시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 대기업보다 전문직 택했다

최상위권 수험생 선택기준 변화  
산업 변동성 등 영향... 안정성 중시  
종로학원 “이탈현상 더 늘어날 것”

〈연세대·고려대 대기업계약학과 정시 등록포기 상황〉

/종로학원

대학	학과명	계약기업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	등록포기	비율	모집	등록포기	비율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25	42	168%	32	62	193.8%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LG디스플레이	7	3	42.9%	7	6	85.7%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현대자동차	20	26	130%	21	27	128.6%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10	21	210%	15	37	246.7%
	차세대통신학과	삼성전자	10	11	110%	10	12	120%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이 큰 폭으로 늘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대기업 취업 안정성'에서 '대학 브랜드와 의 학계열 안정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3명보다 41명(39.8%) 증가한 수치다. 두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정원은 85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등록포기 비율은 169.4%에 달했다. 전년 143.1%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은 68명으로 전년보다 23명(51.1%) 늘었고, 고려대는 76명으로 18명(31.0%)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에서 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보다 21명(39.6%) 늘었으며,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37명으로 16명(76.2%)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현대자동차 계약

학과는 27명으로 1명(3.8%) 늘어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는 6명으로 3명(100%) 증가했다.

모집정원 대비 이탈 규모도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15명 모집에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246.7%에 달했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42명 모집에 74명으로 176.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128.6%, LG디스플레이는 85.7%였다. 정시 최조합격자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합격자들 역시 중복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종로학원은 연고대 계약학과가 정시 가군에서 선발되는 구조상, 나군 서울대 이공계나 나·다군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의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영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

험생들의 최종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공계로 이동한 경우에는 특정 기업 취업 보장보다 대학 브랜드 가치를 우선시한 선택으로, 의학계열로 이동한 경우에는 산업 경기 변동성보다 전문직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나온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의학계열 진입 경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 계약학과와의 중복합격 및 이탈 현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에서는 졸업 이후 특정 산업에 묶이는 안정성보다, 진로 선택의 폭과 전문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지원 강화

2026학년도 운영계획 수립  
학교당 운영비 1억 내외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관련 예산 지원과 교원 추가 배치 및 공동·온라인 교육과정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과도기를 마무리하고 일 반계고 현장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이다.

먼저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채용 예산을 학교당 2200만원 내외로 편성했다.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사회·과학 교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다양화도 확대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공유 캠퍼스 21곳 56개교, 거점학교 10개 영역 5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서울온라인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에는 109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2025학년도 1학기 61개 강좌 대비 79% 늘어난 규모다.

학점 이수제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지원 자료와 학점이수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한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도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연계 운영하고,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게는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를 새롭게 지원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지원도 확대된다. 학점 취득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을 통한 학점 이수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에서는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를 추가 운영해 미이수 학생들에게 추가 학점 이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내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수원시 슬로건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은 수원 방문의 해 로고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산하기관, 관광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이 기수로 참여해 방문의 해 출범을 알린다.

이어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수원 방문의 해 추진 배경과 주요 전략,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사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다. 이후 자매도시 축하영상 상영과 공감토크, 수원 방문의 해 개막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되며, 케이티(kt) 위즈 응원단의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감토크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조성'을 주제로, 관광 약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

는 수원의 관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을 맞은 2026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이 되는 2027년을 계기로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로, 2026년 1400만 명, 2027년 150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관광 콘텐츠 및 역량 강화 ▲메가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행사·이벤트 운영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 상품 개발 등 6대 전략을 설정하고, 연차별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은 역사와 문화, 시민의 일상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무주택 실수요 가구, 대출규제로 자금 부담 커져"

자금조달 여력 6000만원~1억 감소

서울 지역 무주택 실수요 가구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에 해당하는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주거 이동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의 47.1%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 조달 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현진 기자

해돋이 / 07:12 | 해질 / 18:19

오늘의 날씨

2월 23일(월)  
음력 : 1월 7일

수도권 날씨  
-2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 산케이, '다케시마 날' 맞아 또 도발...“일본 고유 영토”  
▲이란 테헤란 등 곳곳서 반정부 시위 재점화...대학생들 거리로. /사진 뉴스시스

▲美정보당국 “中, ‘다탄두미사일’ 등 차세대 핵 무기 개발 목적 실험”  
▲베네수엘라 사면신청 정치범 1600명 달해...“신청서 처리 중”

▲독일·프랑스 “트럼프 관세, EU 차원 대응해야”...무역바주카포 가능성도  
▲인류 50여년만에 달로?...“아르테미스 2호, 헬륨 문제에 3월 발사 연기”